



여수 송기호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화순군,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건강한 음식 제공 등 전염성 질병 예방 위해 마련



화순군은 7일 2019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와 경로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수칙과 활동 지침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경로당 급식도우미에게 건강한 음식 제공, 식중독 등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송미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개인 위생 관리, 조리배식 작업관리, 식품 취급관리에 필요한 요령 등을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2018년 시범 운영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급식수준 향상,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큰 효과를 있어 올 1월부터 13개 읍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화순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243개소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급식도우미로 어르신 431명이 참여한다. 급식도우미 파견을 원했지만 참여자가 없는 경로당은 항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올해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외에도 노·노 케어, 균민생활시설 관리 등 13개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7300만 원을 투입한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접수

내달 11일까지 신청

담양군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

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2만원이 포함된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총 3,115명에게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대비 지원금액이 100%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하고 연령도 7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까지 카드 사용처가 영화·미용·식당 등으로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유용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2월 1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061-380-2714)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5월 3~6일 개최

완도군은 지난 7일, 22회 째를 맞는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향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임하고 행사 운영에 관한 심의안건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장보고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시기를 재현하는

장보고 선양 콘텐츠와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 맛보는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구성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영래(완도문화원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부위원장에 박봉우(장보고연구회 이사장), 감사에 문정권(한국예총 완도군지회장), 사무국장에 김용배(청년연합회장)로 구성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8 장보고수산물축제에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전복 할인 판매행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듯 올해 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울리 우리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셋째 이상 2,000만원

진도군이 출산 가정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1월 출생아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기존에는 출산장려금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70만원 지원해 왔다.

출산장려금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하지만 진도군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은 중단된다.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금 당관계자는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는 가정에 교육비 등 경

제적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사업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방역 총력

장흥군은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 상황실 설치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이달 7일 가금류 농장 61개소에 농장 외부의 오염물질이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 전용장화를 제작하여 지원했다.

여기에 동절기에 효과가 좋은 산화제 종류의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AI가 없는 2019년을 만들기 위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도 거점소독시설 및 특별방역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1월과 2월경에 생식회를 주가 지원하는 등 농장주변의 AI 발생 오염원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는 “철새가 많이 유입되는 주변에 인근 주민과 방문객 출입을 자제시키고,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주2회 소독하는 등 AI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공룡 루지 테마파크’ 4월 개장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에 국내 최초 ‘공룡 루지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루지 테마파크는 소리면 죽림 안심산유원지에 14만 4789㎡(4만 3799평)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4월 개장 예정이다.

테마파크 내에는 루지뿐 아니라 야외 놀이공원, 실내 키즈파크, 체험 학습장도 들어선다.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를 이용해 트랙을 끌어오는 레포츠로 탑승자가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루지의 인기는 통영에서 증명됐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통영 루지체험장은 1년 만에 탑승객 180만 명을 기록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주)유심천온천리조트와 220억 원 규모의 루지 테마파크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루지 테마파크가 12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뿐 아니라 원도심 중심의 관광거점을 회양반도까지 확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이다.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방향